

벼락치기보다 복습... 목표 대학따라 선택과 집중 학습을

한달 앞 수능 학습전략

반영비율 높은 과목부터 공략
헛갈렸던 문제 다시 풀어보기
국어·영어, 정답 근거 중요
수학, 풀이과정 논리 확인

주말에 수능 시간대 모의고사
시간관리 능력 키우고
긴 시험시간 집중력 유지 연습
규칙적 생활·컨디션 유지 필요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14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한달을 '벼락치기' 하기보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풀어본 문제 60%, 새로운 문제 40%=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14일 "수능은 암기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응용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며 "남은 30일 동안 급격한 성적 상승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여겼던 문제도 틀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분명 공부했던 문제도 시험 당일 기억이 나지 않거나 헛갈려가거나 다른 문제를 풀다가 시험이 부족해 틀리는 사례가 있어서이다.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남은 한달은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게 진학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먼저, 헛갈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좋다. 국어나 영어의 경우,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좋다.

수학이라면 풀이과정이 논리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 문제의 난도를 파악해 대략적인 풀이 시간을 설정한 후 풀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를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로 풀어 시간관리의 능력을 함께 키우는 방법을 추천한다. 단, 이때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매일 30분-1시간 정도 투자해 복습하는 게 필요하다.

진학사 관계자는 "수능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여전히 모르는 개념이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능 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길이다"고

조언했다.

◇목표 대학에 따라 학습전략을 세워라=수능은 크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그러나 대학이 성적을 산출할 때 이 영역들을 동일한 비율로 활용하지 않는다. 또 절대평가 된 영역은 대학별로 그 실질 반영률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내에서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똑같이 한 문제를 더 맞춰도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을 먼저 공략하는 학습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지만, 인문계 탐구영역 반영비율을 비교하면 한양대는 30%로 높다. 이에 반해 서강대는 18.7%, 성균관대는 20%로 낮은 편이다.

반대로 인문계 수학의 경우 서강대 46.9%, 성균관대는 40%이지만 한양대는 30%다. 따라서 서강대에 선호도가 있는

수험생이라면 탐구 영역보다는 수학 영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한양대에 선호도가 있다면 수학만큼 탐구영역에도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연습을 실천처럼=수능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2분까지 치러진다. 한문 및 제2외국어유를 치르는 학생이라면 오후 5시 40분까지 매우 긴 시간 동안 치르는 시험이다.

수험생들은 그동안 학교생활을 하며 책상에 앉아 이 시간을 보낸 경험이 많고 고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수능은 다르다. 학교 수업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잠시 졸 수도 있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전, 오후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다.

주말에는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모의고사를 풀이하며 시험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시험 연습을 하며 문제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능 당시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수능 당일 쉬는 시간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게 좋을지, 간단한 산책을 하거나 다음 시간을 대비해 오답노트를 읽는 것이 좋을지 등을 확인하라는 의미다.

주중에는 수업이나 자습시간에 졸지 않고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보다 새벽 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잠을 자워 낮시간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생체리듬을 만드는 게 실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연철 평가팀장은 "앞으로 한달은 체감상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부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를 위해 어떤 과목 공부에 중점을 두는 게 좋은지, 자신의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국에 간 송원초 학생들 후한민족직업대부속소학교서 문화교류회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최근 4박5일 동안 중국 웨양시 소재 자매학교인 후한민족직업대부속소학교에서 제8회 한중교육문화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6월 32명의 중국 학생들이 송원초를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2015년 자매결연한 양 학교는 그동안 8회에 걸쳐 상호 방문을 실시했다.

송원초 4~6학년 학생 26명과 인솔교사 4명 등 3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다양한 재능을 교류하는 공연을 가졌다.

송원초는 합창, 중창, 바이올린 중주, 플루트, 무용 등을 선보였고 현지 학교는 댄스, 무용, 피아노 연주, 독창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명순 송원초 교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한·중 어린이들에게 글로벌 리더로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도록 교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남부대, 광주시장배 미용예술대회 전원 수상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화장미용학과가 최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광주시장배 미용예술경시대회&전국뷰티페스티벌'에 참가해 전원 수상을 했다. 이번 대회에서 남부대는 헤어메이크업·피부·네일 부문에 출전해 대상 2개, 금상 2개, 은상 8개, 동상 6개를 획득했다.

<남부대 제공>

동신대 18일 수시 면접 '셔틀버스' 운행

광주 62곳 42대, 전남·북 41곳 28대 왕복 운행

동신대학교(총장 최일)는 오는 18일 '2020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면접 평가' 때 대학을 방문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 셔틀버스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광주지역 62곳 42대, 전남과 전북지역 41곳, 28대를 왕복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동신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신대는 면접 당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커피와 차, 간식 등을 제공하며 면접이 끝나면 학교별로 캠퍼스 투어 및

전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 대성광장에는 이벤트 존과 푸드 트럭을 운영해 간단한 게임에 참여하면 커피와 핫도그 등을 무료로 나눠준다.

동신대 학생부 교과(수능최저학력기준 미적용 학교)와 실기 위주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5일,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2전형은 11월 8일 이전에 이뤄진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는 수능 성적 배포 이후인 12월 9일 발표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대 학생들, 해외 우수대학서 신기술 배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역량 강화 '글로벌 챌린지' 시행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해외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대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국제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2019 글로벌 챌린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챌린지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 대학과 산업체 교육실습 과정 등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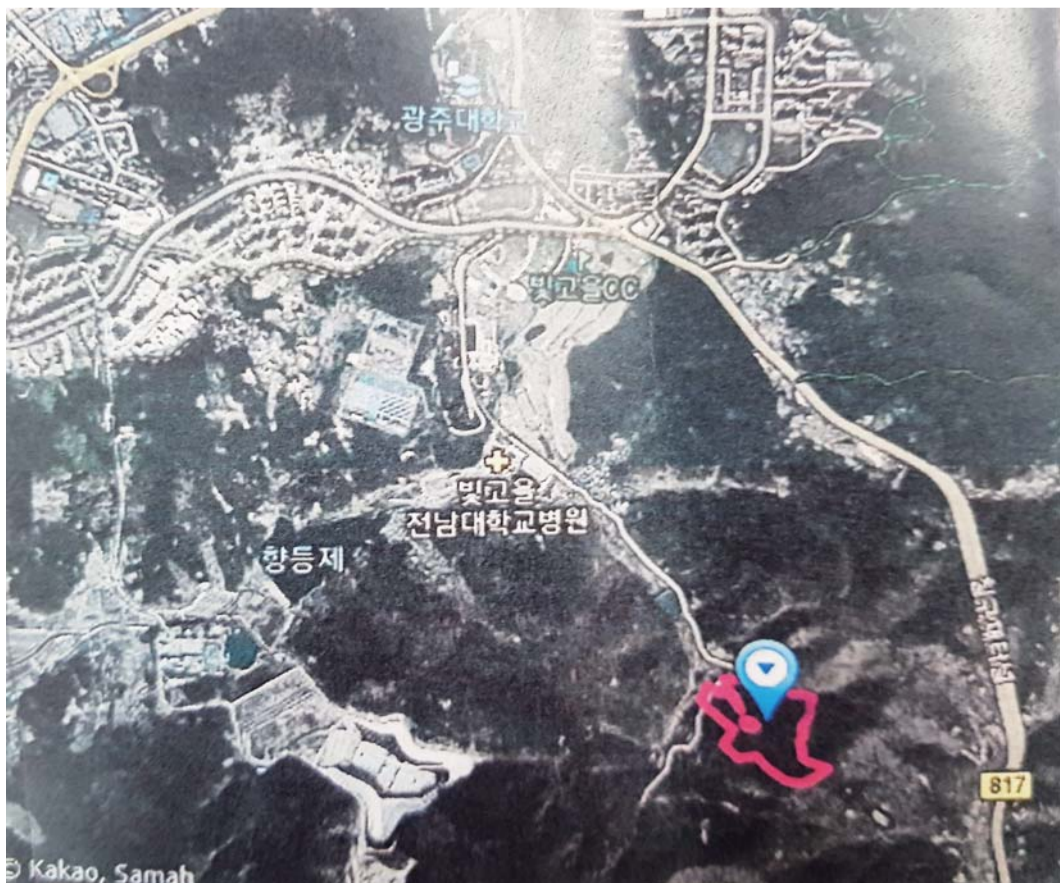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임상지도교수를 포함해 6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오는 2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광주대는 지원팀 가운데 총 6팀-8팀을 최종 선정, 아시아팀과 非아시아팀으로 나

눠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평가기준은 ▲창의성과 도전정신 ▲문제해결의 명료함 ▲지원서 작성의 구체성과 성실성 등이다.

한편 광주대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유망기술·혁신성장 선도 기술 분야의 교육과정 개발과 미래형 캠퍼스 구축 등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